

# 명절 땀 가정 음식물쓰레기 20% 증가...전국 돈 낭비 200억원

[중앙일보] 입력 2019.09.10 12:00



명절에는 각 가정에서 평소보다 음식물쓰레기를 20% 이상 더 배출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포토]

설이나 추석 명절에는 각 가정에서 평소보다 음식물 쓰레기를 20% 더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추산하면 명절 한번 쉼 때 전국에서 200억원가량이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셈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때 전국에서 전자태그(RFID) 방식을 사용하는 전국 공동주택 음식쓰레기 배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명절 때는 음식물쓰레기가 평소보다 20%가량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설 연휴 기간(2월 15~17일)을 포함한 지난해 2월 15~21일 사이 RFID 공동주택에서는 1만4914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돼 같은 달 1~7일 배출된

또,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9월 23~25일)을 포함한 9월 23~29일 일주일 동안에는 1만6209톤이 배출됐다.

이는 같은 달 9~15일에 배출된 1만3577톤보다 2632톤(19.4%)이 더 많은 것이었다.



지난해 2월 서울 종로구 한국전통음식연구소에서 열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하는 설 차례상 차리기'에서 시연된 전통 차례상의 모습. [뉴스1]

전자태그(RFID) 방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가 전체의 50.1%, 연립·다세대 거주 가구가 11.6%인 점을 고려하면, 지난 추석 명절에만 전국에서 대략 1만t의 음식물쓰레기가 배출된 셈이다.

1만t의 음식물쓰레기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200억원이 넘는다.

음식물쓰레기 중 생선 뼈나 과일 껍질 등 어차피 버려야 하는 30%를 제외하고, 음식물쓰레기 재료 가격을 야채 가격 수준인 kg당 3000원으로 할 경우 이 정도의 돈이 전국에서 낭비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육류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낭비되는 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명절 연휴 기간에 평소보다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푸짐한 상차림을 선호하는 우리 고유의 명절 문화 때문"이라며 "음식물쓰레기는 경제적으로 낭비되는 돈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줄이기, 시너 베 커피의 잔글쓰기, 배를 찢는 김밥, 허벅지살빼기 줄이기 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한국환경회의 관계자 등이 지난 6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시민·음식점·정부의 4·4·4 실천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가정, 음식점 그리고 정부 및 지자체 등이 각각 지켜야 할 4대 실천 행동 및 정책 등을 제안했다.[연합뉴스]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형 광고판(서울역, 용산역 지하) [사진 환경부]

환경부는 추석을 맞아 1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국민 캠페인을 본격 실시한다.

우선 "음식물을 남김없이 잘 먹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담은 음식문화 개선 포스터 10만장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또, 서울역과 용산역 등의 대형광고판에는 "음식물, 쓰레기 되기 전 미리 줄이세요"라는 문구를 담은 광고물도 게시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줄이기 홍보활동 '비워서 남 주자'를 11일부터 2주간 실시할 계획이다.

'비워서 남 주자'는 가정에서 음식을 다 먹은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인스타그램)에 빈 그릇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비워서남주자)를 적으면 건당 500원이 적립되고, 적립금은 결식아동을 위해 기부된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